

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자주적이며 애국적인 로선

반미대결전의 총결산을 위한 신념의 결정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철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1년이 되었습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물론 해외의 우리 겨레는 김일성주체, 김정일조선의 강대성과 무궁번영의 확고한 당보를 마련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렬한 애송과 화합없는 경모의 정을 한껏 터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길지 않은 나날을 통하여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깊이 절감하게 되었으며 무궁번영할 민족의 밝은 앞날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은 반미전면대결전으로 세기를 이어오며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엄중히 침해해왔고 미국과 총력전투를 위한 날음명징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초로 말하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협하는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소탕과 핵전쟁도발행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준엄한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2012년 12월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을 감수하여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함으로써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까지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를 감행했습니다.

그에 대처하여 우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제3차 지하핵실험을 단행하는것으로 대담해나선것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였습니다.

그러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또다시 보다 강도높은 《제재결의》를 조작해내는 한편 남조선에서 《키 리졸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광범적으로 벌여놓고 핵전력격까지 투입하면서 전쟁의 불기름을 질게 불어댔습니다.

이로 하여 형식상으로 간신히 유지되어오던 조선전전협정은 완전히 배지되어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의 병진조치를 저지했습니다.

조선반도에는 전쟁을 막을수 있는 어떤 제도적장치도 없게 되었으며 한편의 불꽃에 의해서도 전면전쟁, 열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고있습니다.

전쟁이나 평화나, 자주적인민으로 사느냐 노예적결종을 강요당하느냐 하는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절박한 시기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준엄한 철수를 내리시고 반미전면대결전의 기치를 높이 드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3년 3월철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핵무력발전의 요구로부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천만민을 우리 당의 병진로선판철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전쟁 그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걸고들며 유언에서 정의를 거수기를 발동하여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함으로써

수작을 늘어놓았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한사코 제기하려는 미국의 음모는 우리의 병진로선을 마구 흔들고 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미국무성의 한 고위인원은 우리의 병진로선이 《성립될수 없다》고, 《비핵화문제에 있어서는 진정성과 구체적인 행동》이 없고 되가면서 저들이 바라는것이 《북의 로선변화》라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 주장판 커리는 지난 2월 남조선에 기여하여 《북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비핵화공약준수》나 뭐니 하고 떠들며 또다시 우리의 로선을 시비질하였다.

우리의 병진로선과 핵억제력강화조치는 철두철미 미국의 날로 로골화되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존엄을 《북의 로선변화》로 몰아내며 《비핵화공약준수》를 떠드는것은 그야말로 도적이 때를 드는 격의 괴뢰적인 망동이다.

비핵화공약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 할 소리이다. 지난 2005년의 6자 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 또는 상용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그 이후 성명을 반복해 위반하면서 졸근 고에 역행하였다.

최근에도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다시금 긴장을 고조시킬 목적으로 핵전략적목적을 내세워 조선서해 적도상공에 들어밀어 우리를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하는 위협요인으로 묘사하면서 그에 대처하여 관련기술과 장비를 계속 개발, 배비할것이라고 공언하였으나 그 무슨 《6대북핵대응원칙》이라는것을 내놓고,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과 《군사적위협》의 강화》를 운운하였다. 미국의 이런 도합적인 정세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극도의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조선된 사태는 우리가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온것이 얼마나 정당한 선택이였는가를 다시금 실증해 주고있다.

미국은 남강도적인 로리로 미국이 핵억제력을 걸고들며 반공화국소탕에 열을 올릴수록 차례질하는 국제적인 비난과 조소, 자국의 안보를 해치는것밖에 없다는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제재》와 《교섭봉쇄》책동, 로골적인 군사위협공작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예측할수 없는 위험한 전쟁정세로 치닫해가고있으며 없는 사실들까지 날조하여 감행하고있는 반공화국(인민)소탕은 위협도수를 넘어 극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것은 우리의 핵억제력을 허물고 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리려는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발로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그 누가 가져다준 선사품도 아니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저절로 생겨난것도 아니다. 미국의 가혹해지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허리를 졸라매며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왔다. 다시는 침략자들의 노예로 살수 없기에 우리는 견인물발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주권수호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그렇듯 소중한 핵억제력이 그 무엇과 바꾸기 위한 희생물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핵포기》를 운운하며 위협공작과 회유기만을 일삼을수록 핵보검을 더욱 여세게 틀어쥐고 민족의 자주권수호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은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전략적로선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시비할 권리가 없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만 정의를 수호할수 있다. 핵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며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공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인정》하면 존재하는 그런 유명수단이 아니다. 시간도 정제도 핵억제력을 틀어쥐고 우리에게 있다.

《위반》으로 걸고들며 《핵포기》를 실현해야 한다고 우기는 미국의 논리야말로 남강도적인 꾀본질이다.

스처지킬수 없는것은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구실로 북침핵전쟁도발을 위한 모험적책동을 날로 약탈해 감행하고있고있는 사실이다. 얼마전 미국은 4개년국방전략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공화국을 저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하는 위협요인으로 묘사하면서 그에 대처하여 관련기술과 장비를 계속 개발, 배비할것이라고 공언하였으나 그 무슨 《6대북핵대응원칙》이라는것을 내놓고,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과 《군사적위협》의 강화》를 운운하였다. 미국의 이런 도합적인 정세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극도의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조선된 사태는 우리가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온것이 얼마나 정당한 선택이였는가를 다시금 실증해 주고있다.

미국은 남강도적인 로리로 미국이 핵억제력을 걸고들며 반공화국소탕에 열을 올릴수록 차례질하는 국제적인 비난과 조소, 자국의 안보를 해치는것밖에 없다는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민족의 보검, 통일조선의 국보

◇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전쟁억제력은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미쳐달라하는 내외호전광들에게 무서운 공포를 안겨주고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해 임의적인 수호에게는 무한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핵은 통일조국의 통성변명을 위한 영웅의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해외의 각계각층 동료들은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미국의 핵전쟁기도를 무너뜨림으로 만들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담보해 주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는 만능의 보검, 통일조선의 국보로 열렬히 찬양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은 미행정부가 새로운 병진로선을 내세운 우리 공화국의 초강경자세와 관련하여 외교적노력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조선이 미국본토를 공격할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과 군사적힘이 없다면 과연 군사초대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이 조선과 무력대결을 피하고 외교적노력만으로 가다를 잡았는가고 하면서 피리를 낮추고 고삐를 부리는 오바마행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해외의 광범한 동료들이 미국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거부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통일의 무궁번영을 담보하는 우리의 자위적전쟁억제력에 대해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느끼고있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 우리의 선군정치와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가장 믿음직하게 수호해주는 위력한 애국의 보검이다.

세기의 그 어디에도 우리 민족처럼 외세에 의하여 70년동안이나 분열의 고통과 항시적인 핵위협에 시달려온 민족은 없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으로 우리의 강도가 들로 갈라졌

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의해 조선반도 핵문제가 산생되었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순한 전쟁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투입하고 북침을 노린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광범적으로 벌여놓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핵추진잠수함강공에서는 한낱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구상 그 어디든 침략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보낼수 있는 믿음직한 수단을 가지고있는 한 제아무리 오만 침략자와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를 자랑하는 미국이라도 감히 어쩔수 없다. 한세기전 열강들의 각축전장이었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지위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미국이 핵공공을 휘두르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통괄하던 시대도 영원히 지나갔다.

◇ 외세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의 밝은 앞날을 열어주는 우리의 선군정치와 자위적핵억제력을 적극 지지·옹호하는것은 온 겨레의 성스러운 천서이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게 된다는 말도 있듯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만국도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순간도 약화시킬수 없던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것이 전쟁억제력이다. 우리 민족은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침략적인 외세가 남아있고 적대세력의 핵전쟁도발행동이 계속되는 한 저절로 이루어질수 없다.

해외의 각계각층 동료들은 사상과 리념, 정전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어 계급주의침략책동의 도전을 끝내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인 우리의 선군정치와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한바탕으로 과시하며 저지하여 하며 그 믿음직한 보검에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 것이다. 바로 그 길에 우리 민족의 영원무궁한 미래가 있다. 선군의 빛날바탕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창창한 메일을 확정시켜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통할수 없는 날강도들의 꾀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제지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할 심산으로 남강도적인 《북핵위협》나팔을 계속 불어내고있다. 미국은 일본과 남조선당국을 부추겨 우리의 핵억제력이 지역적색의 《불안정》의 주요인원이라는 떠무늬하에 팽창을 퍼뜨리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끈덕지게 《북핵소탕》명발을 쫓으며 반공화국 핵소탕을 날로 강화하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제3차 《핵안정수뇌자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남조선의 집권자들과 이마를 맞대고 반공화국핵소탕의 모의를 하였다. 여기에서 오바마는 그 무슨 《북핵불용원칙》이라는것을 운운하며 우리를 약탈하게 걸고들었으며 《핵포기》를 위한 미, 일, 남조선 3각공조체제를 강화할 공세를 꾸미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핵을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그것을 구실로 국제적인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의 도수를 더욱 늘어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날로 포악무도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얼마전 미국무성 대변인이라는 자도 일본에 날아가 우리의 정상적인 로선에 반발사론편을 《도발》로 유도하면서 《북의 비핵화》나 뭐니 하는 운당치 못한

통할수 없는 날강도들의 꾀변

수작을 늘어놓았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한사코 제기하려는 미국의 음모는 우리의 병진로선을 마구 흔들고 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미국무성의 한 고위인원은 우리의 병진로선이 《성립될수 없다》고, 《비핵화문제에 있어서는 진정성과 구체적인 행동》이 없고 되가면서 저들이 바라는것이 《북의 로선변화》라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 주장판 커리는 지난 2월 남조선에 기여하여 《북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비핵화공약준수》나 뭐니 하고 떠들며 또다시 우리의 로선을 시비질하였다.

우리의 병진로선과 핵억제력강화조치는 철두철미 미국의 날로 로골화되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존엄을 《북의 로선변화》로 몰아내며 《비핵화공약준수》를 떠드는것은 그야말로 도적이 때를 드는 격의 괴뢰적인 망동이다.

비핵화공약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 할 소리이다. 지난 2005년의 6자 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 또는 상용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그 이후 성명을 반복해 위반하면서 졸근 고에 역행하였다.

최근에도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다시금 긴장을 고조시킬 목적으로 핵전략적목적을 내세워 조선서해 적도상공에 들어밀어 우리를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하는 위협요인으로 묘사하면서 그에 대처하여 관련기술과 장비를 계속 개발, 배비할것이라고 공언하였으나 그 무슨 《6대북핵대응원칙》이라는것을 내놓고,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과 《군사적위협》의 강화》를 운운하였다. 미국의 이런 도합적인 정세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극도의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조선된 사태는 우리가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온것이 얼마나 정당한 선택이였는가를 다시금 실증해 주고있다.

미국은 남강도적인 로리로 미국이 핵억제력을 걸고들며 반공화국소탕에 열을 올릴수록 차례질하는 국제적인 비난과 조소, 자국의 안보를 해치는것밖에 없다는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역사가 새겨준 피의 교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비극적사태는 자기 힘이 강하지 못하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할수 없고 인민의 행복과 번영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고있다.》

이 세상이 노예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와 민족은 없다.

그러나 계급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오늘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세계도처에서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있다.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자위적자위적억제력을 갖추지 못한 국제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기어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간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의 비극적사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침략과 강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국제주의자들은 더 많은 자원을 약탈하고 패권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격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짓밟고있다.

그 단면에도 미국의 군사력을

역사가 새겨준 피의 교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비극적사태는 자기 힘이 강하지 못하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할수 없고 인민의 행복과 번영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고있다.》

이 세상이 노예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와 민족은 없다.

그러나 계급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오늘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세계도처에서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있다.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자위적자위적억제력을 갖추지 못한 국제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기어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간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의 비극적사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침략과 강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국제주의자들은 더 많은 자원을 약탈하고 패권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격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짓밟고있다.

그 단면에도 미국의 군사력을

핵전쟁위기를 불러오는 북침3각공조

머칠전 미국이 네델란드에서 제3차 《핵안정수뇌자회의》가 끝난 직후 일본수상과 남조선집권자를 모아놓고 반공화국핵소탕의 모의를 하였다. 여기에 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북의 핵보유를 용납할수 없다》는 팽발을 늘어놓으면서 미, 일, 남조선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여기에는 연합훈련과 미사일방위체계 등 군사협력이 포함된다고 떠들었다. 이에 대해 아베와 남조선집권자는 《한반도 대안이 중요하다》는, 《간헐한 공조체제유지》나 하고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미국이 그 무슨 《북핵대응》이라는것을 구실로 3자수뇌회담을 연것은 미, 일,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우리 공화국을 포해압살하고 대아시아침략전략을 실현하려는 불순한 속심의 발로이다.

미국에 있어서 일본과 남조선은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의 기본동력이다. 이 순애동맹자들은 부추겨 대조선포위망을 형성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경군사적압력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침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자는것을 미국의 변함없는 운심이다. 미국이 이번 3자수뇌회담에서 일본과 남조선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자》라고 추어올린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북핵대응》을 코에 건 미국의 3각공조체제강화놀음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불안정과 군사적긴장격화의 근원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잊지도 않는 《북의 핵위협》을 운운하며 일본, 남조선과의 3각군사동맹강화를 박차해가고있는것은 괴뢰적인 침략자의 날강도적인 본성이 드러내보일뿐이다.

실제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위협을 조성하는것은 다름아닌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반공화국대결책동이다. 북로련파와 같이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서 방대한 병력과 핵추진잠수함,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한 최신공군기체를 투입한 가운데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 핵전쟁공작각본을 적용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있다. 이 전쟁연습이 얼마나 위험하고 도발적인 공격훈련이 하는것은 남조선의 포항에서 실천적행위 벌어지고있는 연합사수훈련을 놓고도 잘 알 수 있다. 《쌍룡》의 간판을 단 이 전쟁연습은 지금 사상 최대규모로 감행되고있으며 그 타격목표는 우리

핵전쟁위기를 불러오는 북침3각공조

머칠전 미국이 네델란드에서 제3차 《핵안정수뇌자회의》가 끝난 직후 일본수상과 남조선집권자를 모아놓고 반공화국핵소탕의 모의를 하였다. 여기에 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북의 핵보유를 용납할수 없다》는 팽발을 늘어놓으면서 미, 일, 남조선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여기에는 연합훈련과 미사일방위체계 등 군사협력이 포함된다고 떠들었다. 이에 대해 아베와 남조선집권자는 《한반도 대안이 중요하다》는, 《간헐한 공조체제유지》나 하고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미국이 그 무슨 《북핵대응》이라는것을 구실로 3자수뇌회담을 연것은 미, 일,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우리 공화국을 포해압살하고 대아시아침략전략을 실현하려는 불순한 속심의 발로이다.

미국에 있어서 일본과 남조선은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의 기본동력이다. 이 순애동맹자들은 부추겨 대조선포위망을 형성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경군사적압력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침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자는것을 미국의 변함없는 운심이다. 미국이 이번 3자수뇌회담에서 일본과 남조선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자》라고 추어올린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북핵대응》을 코에 건 미국의 3각공조체제강화놀음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불안정과 군사적긴장격화의 근원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잊지도 않는 《북의 핵위협》을 운운하며 일본, 남조선과의 3각군사동맹강화를 박차해가고있는것은 괴뢰적인 침략자의 날강도적인 본성이 드러내보일뿐이다.

실제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위협을 조성하는것은 다름아닌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반공화국대결책동이다. 북로련파와 같이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서 방대한 병력과 핵추진잠수함,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한 최신공군기체를 투입한 가운데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 핵전쟁공작각본을 적용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있다. 이 전쟁연습이 얼마나 위험하고 도발적인 공격훈련이 하는것은 남조선의 포항에서 실천적행위 벌어지고있는 연합사수훈련을 놓고도 잘 알 수 있다. 《쌍룡》의 간판을 단 이 전쟁연습은 지금 사상 최대규모로 감행되고있으며 그 타격목표는 우리

북, 남, 해외 여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여성노예문제대변인들은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가한 잔인한 전쟁범죄를 청산하고 최근 날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반공화국정세와 전쟁야욕을 단호히 저지시켜나가기에는 온 겨레의 뜨거운 의지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북, 남, 해외여성노예문제대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지난 세계 40여년간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면서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해어린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쳐온 범죄국가이다.

가혹한 식민지통치기간 일본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와 자원을 마구 약탈하고 전쟁범죄를 강제연행하여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는데 여성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무참히 짓밟고 수없는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20만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쟁범죄에 끌고다니는 인연을 유린한 일제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인류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무후무한 것이다.

세기를 넘어 일본이 패망한지 70년이 되어오지만 민족의 가슴에 서린 원한과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고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성실히 사죄, 배상하고 침략책사를

일 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여성노예문제대변인들은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가한 잔인한 전쟁범죄를 청산하고 최근 날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반공화국정세와 전쟁야욕을 단호히 저지시켜나가기에는 온 겨레의 뜨거운 의지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북, 남, 해외여성노예문제대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지난 세계 40여년간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면서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해어린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쳐온 범죄국가이다.

가혹한 식민지통치기간 일본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와 자원을 마구 약탈하고 전쟁범죄를 강제연행하여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는데 여성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무참히 짓밟고 수없는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20만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쟁범죄에 끌고다니는 인연을 유린한 일제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인류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무후무한 것이다.

세기를 넘어 일본이 패망한지 70년이 되어오지만 민족의 가슴에 서린 원한과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고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성실히 사죄, 배상하고 침략책사를

일 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북, 남, 해외 여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는 이 기회에 독도는 어제 도 오늘도 캐달도 영원히 우리 나라의 영토임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선언하며 독도와 그 주변에 대한 일본(사위)의 불법침략과 무력강제책동을 철저히 분쇄해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를 의곡하고 지라하는 세 세대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는 일본방파의 파괴적인 행위를 철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4.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책동을 단호히 강력히 벌려나갈것이다.

우리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북남관계개선을 적극 추동하고 민족의 화합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앞당기며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나갈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여성들은 우리 민족의 기치밑에 올헤는 커이 북남관계 개선을 고조시키기 위해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연대해나갈것이다.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북, 남, 해외 여성노예문제대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지난 세계 40여년간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면서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해어린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쳐온 범죄국가이다.

가혹한 식민지통치기간 일본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와 자원을 마구 약탈하고 전쟁범죄를 강제연행하여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는데 여성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무참히 짓밟고 수없는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20만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쟁범죄에 끌고다니는 인연을 유린한 일제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인류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무후무한 것이다.

세기를 넘어 일본이 패망한지 70년이 되어오지만 민족의 가슴에 서린 원한과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고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성실히 사죄, 배상하고 침략책사를

우리의 핵억제력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경제강국건설의 보검

우리 당이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합법적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우리의 병진로선은 세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세계 각국의 출판보도물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화에 대하여 계속 보도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은 생명과 담화 등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 《조선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최후승리의 보검》, 《조선로동당이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한것은 정당한 선택》,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현실을 외면하면서 우리의 병진로선을 비난하는 여론을 내세우고있다. 그들은 외교전문가들이 아니라, 정세를 악마에 불과하는 행위라느니 뭐니 하는 허튼 나팔을 계속 불어내고있다. 그야말로 쾨펜이다.

우리의 병진로선은 그 무슨 전술적인것도 아니며 정세를 악화시키기 위한것도 아니다. 철저히 그것은 강력한 핵억제력에 토대하여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우리 민족주체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감을 중시시켜 민족의 핵력을 보장하고 강성병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선택과 로선은 정당하며 불가하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려는 것은 조성된 정세의 필수적으로부터 출현한 것이다. 경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환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자유적인 전쟁억제력에 토대하여 이제는 인민들이 더는 허리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도록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여야 된단 우리 당에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허리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편이여 취하였다. 그러나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려면 우리의 앞길에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었다.

미국의 집요한 대조선전대시책등 때문이었다. 당의 명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자신단만하게 돌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대한 기세에 걸림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합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박하기 위한 책동에 미쳐 날뛰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결코 남감도적인 유엔안보보장사회 《제재결의》를 조작하여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까지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더욱 팔기를 부리며서보다 강도는 《제재결의》를 조작해왔다. 한편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키 리츨보》, 《독서리》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핵전쟁소동에 조조선반도에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국의 강경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나갔다. 전체 인민이 단미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우리 공화국의 초강경대응에 놀란 미국은 감히 선봉질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제재와 압박으로 우리를 물조르거하여 우리의 핵억제력을 허물고 사회주의제도를 약체로려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장기화될 것이라는데 보여준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의 평화적노력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침체한 투쟁의 동반하게 되었다. 현실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핵억제력을 강화해나가는 요구하였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우리 당은 새로운 전략적로선, 병진로선을 내놓게 되었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은 전쟁억제력을 바탕으로 강화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

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로선이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출현한 때로부터 흘러온 70년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이 기간 세계적 핵무기에서 행진이 계속되고 여러 지역에서 크고작은 전쟁들이 많았지만 핵보유국들만은 군사적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침략자와 그 본거지들을 지구상 어디에 있던 정밀타격할수 있는 강력한 능력만과 놀란 미국은 감히 선봉질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제재와 압박으로 우리를 물조르거하여 우리의 핵억제력을 허물고 사회주의제도를 약체로려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장기화될 것이라는데 보여준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의 평화적노력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침체한 투쟁의 동반하게 되었다. 현실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핵억제력을 강화해나가는 요구하였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우리 당은 새로운 전략적로선, 병진로선을 내놓게 되었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은 전쟁억제력을 바탕으로 강화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

것을 구실로 방대한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대규모적인 핵전쟁발장난소동을 일으키고있다.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우리 리를 굴러내려 버리고자 하는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감히 우리를 저지 못하였고, 반대가 강하면 전쟁억제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가지 않았다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할수도 없었을것이며 경제건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였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옳았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최근년간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태는 우리 당의 병진로선의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비극적사태는 자기 힘이 강하지 못하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할수 없고 인민의 행복과 번영도 이룩할수 없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이미 지면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양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발한대로 중동지역의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시기 일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내정간섭과 침략의 대상으로 된것은 바로 자기 힘을 강화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이 나라들은 대국들에게 기대를 걸고 제침을 기

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어떤 나라든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이미 지면 전쟁억제력까지 포기하였으며 그후에는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되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양보와 타협은 투항이고 굴복이며 망국의 길이다.

우리는 현실을 통해 우리가 핵억제력을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허리를 졸라매고 핵억제력을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허리를 졸라매고 핵억제력을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허리를 졸라매고 핵억제력을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현실을 통해 우리가 핵억제력을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허리를 졸라매고 핵억제력을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허리를 졸라매고 핵억제력을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된다.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에 대한 한결같은 양보는 백결을 천결을 양보를 가져온다. 이것은 곧 죽음의 미한다. 이라크가 바로 그렇게 되었으며 그후에는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되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양보와 타협은 투항이고 굴복이며 망국의 길이다.

우리는 현실을 통해 우리가 핵억제력을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허리를 졸라매고 핵억제력을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허리를 졸라매고 핵억제력을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된다.

천인공노할 강패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멸적의 기개 하늘을 찌른다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세계에 더욱 빛내어려는 의지와 일념으로 구슬땀을 흘리고있는 우리 체육인들은 피피군부망나니들의 치명적인 악행소식을 듣고 가슴을 질정하지 못하고있다. 어제는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위협하는 뼈대를 날려보내며 망명을 부리더니 오늘도 우리 선원들을 램치하여 저들의 두려운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써먹으려 한 이 미친개부리들을 어떻게 징벌해야 속시원하겠는지 모르겠다.

무죄값은 옥체에 뻗쳐오르는 해적소굴 백령도를 비롯한 해적놈들의 소굴들을 모조리 들부실 멸적의 기개 훈현장들에 차넘치고있다. 동족대결에 미쳐 합부로 날치는 좀벌레같은 놈들을 선군의 무적주먹으로 단호히 징벌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체육인들의 한결같은 책임이다. 국제적으로 조난당한 선박과 선원들을 인도주의적에서 구조해주고 방조를 제공하며 그들의 조국으로 돌려보내는데는 초보적인 레이로 되고있다. 그러나 국제법에도 인도주의도 모르는 남조선군부패자들은 과연 어떻게 인양이 되었는가. 강제압박, 무자비한 폭행과 《귀순》강요. 이것이 바로 《인연》이니, 《인도주의》라고 떠드는 피피들의 추악한 진면모이다.

백령도의 피피군악당놈들이, 똑똑히 들으라. 놈들이 우리 친반군민의 보복타격앞에서 그 두려운 목숨을 건질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아래 자라나고 정진과 옥체를 강철로 다진 우리 체육인들은 가슴후련한 보복의 시각이 오면 주저없이 훈련복을 군복으로 갈아입고 흰수격멸의 길에 펼쳐나설것이다. 체육성 국장 김 명 수

고 서훈짜리 연극을 늘어내고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따위 어리석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범죄자들은 이번엔 저저런 극악무도한 도발행위에 대한 책임을 철대로 벗어달라!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천인공노할 범죄적악행에 대해 우리에게 즉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피피들이야말로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반인륜적만행도 꺼리지 않는 극악한 대결정신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참는데도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무리에게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다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야 한다. 다시는 개꿈을 꾸지 못하게 대결중심만이 짝 들어한 그 두려운 골통을 박살해야 한다. 짐작없음준대하 정보과학 기술대학 조급당비서 류 원 섭

한가도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무리에게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다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야 한다. 다시는 개꿈을 꾸지 못하게 대결중심만이 짝 들어한 그 두려운 골통을 박살해야 한다. 짐작없음준대하 정보과학 기술대학 조급당비서 류 원 섭

한가도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무리에게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다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야 한다. 다시는 개꿈을 꾸지 못하게 대결중심만이 짝 들어한 그 두려운 골통을 박살해야 한다. 짐작없음준대하 정보과학 기술대학 조급당비서 류 원 섭

한가도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무리에게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다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야 한다. 다시는 개꿈을 꾸지 못하게 대결중심만이 짝 들어한 그 두려운 골통을 박살해야 한다. 짐작없음준대하 정보과학 기술대학 조급당비서 류 원 섭

한가도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무리에게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다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야 한다. 다시는 개꿈을 꾸지 못하게 대결중심만이 짝 들어한 그 두려운 골통을 박살해야 한다. 짐작없음준대하 정보과학 기술대학 조급당비서 류 원 섭

한가도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무리에게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다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야 한다. 다시는 개꿈을 꾸지 못하게 대결중심만이 짝 들어한 그 두려운 골통을 박살해야 한다. 짐작없음준대하 정보과학 기술대학 조급당비서 류 원 섭

한가도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무리에게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다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야 한다. 다시는 개꿈을 꾸지 못하게 대결중심만이 짝 들어한 그 두려운 골통을 박살해야 한다. 짐작없음준대하 정보과학 기술대학 조급당비서 류 원 섭

한가도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무리에게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다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야 한다. 다시는 개꿈을 꾸지 못하게 대결중심만이 짝 들어한 그 두려운 골통을 박살해야 한다. 짐작없음준대하 정보과학 기술대학 조급당비서 류 원 섭

한가도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무리에게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다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야 한다. 다시는 개꿈을 꾸지 못하게 대결중심만이 짝 들어한 그 두려운 골통을 박살해야 한다. 짐작없음준대하 정보과학 기술대학 조급당비서 류 원 섭

한가도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무리에게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다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야 한다. 다시는 개꿈을 꾸지 못하게 대결중심만이 짝 들어한 그 두려운 골통을 박살해야 한다. 짐작없음준대하 정보과학 기술대학 조급당비서 류 원 섭

한가도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무리에게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다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야 한다. 다시는 개꿈을 꾸지 못하게 대결중심만이 짝 들어한 그 두려운 골통을 박살해야 한다. 짐작없음준대하 정보과학 기술대학 조급당비서 류 원 섭

오늘의 세계

지난 1월 미국잡지 《뉴스 위크》에는 현 집권자의 실례한 한해를 아우하는 글이 실렸다. 《일전대 던진 격인 2013년, 오바마에게 있어서 내년은 새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은 오바마에게 있어서 2013년은 최악의 한해였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지난 한해 동안에 그가 겪었던 불미스러운 사실들을 차례로 꼽아나갔다. 여기에 미국가 안전보장국이 국내외에 대대적 도청을 감행한 죄행이 꼽혔다. 발각된 도청행위로 미국이 당한 수지와 모멸감이 얼마나 컸는지 생략되었는가는, 문제는 도청행위와 관련된 이

러저러한 추문이 한두번의 야유나 조소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도청추문사건은 해를 넘기며 끊임없이 잇달고있다. 일방시정국이 휴대용전화로 주고받는 통화문들을 전세계적으로 하루에 2억통 수집하여 정보분석에 리용하고있는 사실, 도이철헤나대부사 등 나라 정계 및 세계의 유력자 320명의 전화내용을 도청한 사실 등이 전하거 공개되었다. 이 모든 사실자료들은 올해 들어와 새롭게 드러나고있다. 얼마전에는 미중앙정보국이 미국의 의원들을 도청한 사실이 판명되었다. 밝혀진데 의하면 미중앙정보국은 《반테로렌트》의 미명하에 감행된 미국의 고문만행을 조사하는 미국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오렌지 군도 감시활동을 벌여왔다고 한다. 미국에는 물론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비단히 목소리까지 울려오고있다. 이번엔 드러난 도청추문사건이 미국에서의 한심한 인권신태를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한결같이 혀를 찼고있다. 세상에 미국만큼 《인연호》를 거버내가 나도록 고아없는 나라는 없다. 최근에는 그 무슨 《세계인권보조기구》라는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누구의 《인연》에 대해 혼시질하느라 여념이 없

다. 바로 이 《홍통한 인연호》의 진면모가 어떠한것인가 하는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있다. 바빠맞은 미국이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도청추문사건이 또 터진것이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통화내용들을 특출해서 한달동안 보관할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있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이러한 기술을 도입된 체를 2011년에 어느 한 나라를 대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며칠후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국가안전보장국이 해외의 대규모통신기구 기업인 화위기술유한공사 본사의 봉사기에 침입하여 최고경영책임자 등의 통신을 감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2007년경부터 시작된 작전으로서 이 공사와 중국인해방군의 판계를 내뻗는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또한 공사의 제품을 구입한 나라의 컴퓨터와 통신망에 침입하여 오바마가 명령을 내리던 싸이버공격을 가하는것도 가상하고있다고 한다.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너털한 도청행위를 당장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듣느니 처음이

라는 식으로 아년보살하고있다. 그야말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의 뻔뻔스러움이 극치를 이룬다고 해야 할것이다. 하기가 세계의 전면적에 대해 도청행위를 하지 않았노라고 다짐을 한지 얼마 안되었는지 사건들이 련속 등장하고있으니 미국으로서야 얼마나 진면이 나섰는가. 게다가 도청추문사건의 폭로자인 스노우엔이 한 발언으로 하여 더욱 그렇다. 그는 조만간 미국정부의 정탐모략책동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폭로할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미국은 스노우엔의 입을 틀어막지 못해 안달이 나고있다. 미국이 스노우엔을 배신자로 취급하고있노도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를 보호해야 할 인물로, 지어는 《영웅》으로까지 떠받들고있다. 이제 또 어떤 파격적인 진실이 세상을 들뜨도록 울려 퍼질지 미국은 전전긍긍하고있다. 세계는 미국에 물고있다. 미국의 도청추문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미국은 한 말을 찾지 못하고있다.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기 위해 지랄발광하는 미국에 있어서 그렇기 있을수 없다. 미국은 지구밖으로 내뿜어치야 할 악의 나라다. 본사기자 박 속 영

세계적으로 산림황폐화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약 230만ha의 산림이 황폐화되었다고 한다. 지금에 와서 이것은 낡은 자료로 되고있다. 최근 몇달동안에만도 오스트랄리아, 미국 등지에서 산불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요인으로 하여 많은 산림이 없어졌다. 지난 2월 28일 코프디트르의 중부지역에서는 산불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300ha이상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많은 경제적손실이 초래되었다. 이 나라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45만ha의 산림이 산불로 황폐화되었다고 한다. 지난 3월 19일에는 필리핀의 북부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나 50ha의 산림과 초원이 불타버렸다. 보다시피 산림황폐화가 날을 따라 심해지고있다. 산림이 황폐화되면 인적, 물적피해가 막심하다. 경제적손실은 물론이고 생태환경 또한 무참히 파괴된다. 산림황폐화현상은 지구온난화도 촉진시킨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가 지구온난화에서 벗

어나자면 인류가 많은 부침됨을 다산 산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산림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큰물과 가뭄의 방지, 기후안정 등 사람들의 생존과 밀접히 관계되는 생태봉사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현시 산림황폐화를 막기 위한 인간의 활동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있다. 그러자면 세계적으로 산림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광적으로 벌어나라 절적으로 개조하는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절박성과 심각성을 잘 알고있는 많은 나라들이 산림보호 및 조성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연 5억 3000만명이 의무적인 나무심기 활동에 참가하여 25억 2000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리하여 새로 조성된 산림면적이 609만 2000ha에 달하였다고 한다. 특히 베이징시에서 나무심기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있다. 시에서는 지난 33년간 연 8200만명이 의무적인 나무심기 운동에 참가하여 1억 9300만그루의 나무를 심은 결과 시의 산림면적이 12.8%

로부터 40%로 늘어났다고 한다. 베네수엘라가 2006년부터 산림조성계획을 세우고 산림을 보호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적극 불리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각지 양포장들에서 45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생산되었으며 3만 3190ha의 면적에 산림이 새로 조성되었다. 2005년 산림법이 제정된 이후 케냐에서는 산림보호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전장적인 수림 황폐화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가나정부도 최근 나라의 산림 보호 야생동물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환경을 위한 정책을 작성하였다. 부룬디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현실은 산림조성이 결코 단순한 경제적인 사업이 아니며 인류의 생산자본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고있다. 산림을 잘 보호하고 리용할 때에만 그것이 풍부한 자원으로 시 영위히 인간에게 복부할수 있다. 이를 위한 여러 나라들의 활동은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세계의 평가 - 악의 근원은 미국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온갖 못된것을 일삼고있어 수많은 나라 사람들속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65개 나라의 7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24%가 미국을 가장 위험한 나라로 본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반면에 서방 언론들이 《악의 근원》이라고 평한 나라를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은 응답자비율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과 서방의 간섭책동 규탄

이란동원군 부사령관이 9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베네수엘라에 풍부한 원유자원이 매각되었는것으로 하여 자기 나라가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목표로 되고있다고 까뻐냈다. 원유를 장악하는것이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유일한 방도이기때문에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 정부를 위협하고 그 부르조이질들이 권력을 차지하도록 획책하고있다고 그는 비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필리핀에서 반미 시위

필리핀에서 반미 시위가 벌어졌다. 베네수엘라가 2006년부터 산림조성계획을 세우고 산림을 보호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적극 불리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각지 양포장들에서 45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생산되었으며 3만 3190ha의 면적에 산림이 새로 조성되었다. 2005년 산림법이 제정된 이후 케냐에서는 산림보호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전장적인 수림 황폐화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가나정부도 최근 나라의 산림 보호 야생동물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환경을 위한 정책을 작성하였다. 부룬디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현실은 산림조성이 결코 단순한 경제적인 사업이 아니며 인류의 생산자본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고있다. 산림을 잘 보호하고 리용할 때에만 그것이 풍부한 자원으로 시 영위히 인간에게 복부할수 있다. 이를 위한 여러 나라들의 활동은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필리핀에서 반미 시위가 벌어졌다. 베네수엘라가 2006년부터 산림조성계획을 세우고 산림을 보호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적극 불리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각지 양포장들에서 45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생산되었으며 3만 3190ha의 면적에 산림이 새로 조성되었다. 2005년 산림법이 제정된 이후 케냐에서는 산림보호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전장적인 수림 황폐화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가나정부도 최근 나라의 산림 보호 야생동물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환경을 위한 정책을 작성하였다. 부룬디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현실은 산림조성이 결코 단순한 경제적인 사업이 아니며 인류의 생산자본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고있다. 산림을 잘 보호하고 리용할 때에만 그것이 풍부한 자원으로 시 영위히 인간에게 복부할수 있다. 이를 위한 여러 나라들의 활동은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